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PREJUDICE AGAINST LAW SCHOOL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들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과도기에 있다.  
 디케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익과 명분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Dike*

## Contents

-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 사법시험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 Diversity, Scholarship, Special Admission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운영과 학습 지원
- The Voice of Students at Law School

##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사법시험

### 사법시험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첫째,** 소위 '고시 망국론'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인력 배분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전공이나 학력, 대학의 성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응시(2006년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필요)할 수 있어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려 대학 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응시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소위 '고시낭인'이 속출하였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관계없이 대학의 법학과로 몰리게 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이러한 고급 인력의 편중 현상은 학문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고시학원 위주의 수험 준비로 법대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데다가, 판·검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위주의 사법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국제, 환경, 노동, 조세,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화·국제화된 변호사를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07. 11. 06 한찬식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은 판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도 법원의 판결문과 검찰 내 서류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또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판례 암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점점 더 복잡다기해지고 있는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사법시험은 개선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만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폐쇄적인 법조문화 개혁,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확보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다란 장점은 모르쇠하면서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합니다. 매월 교재비, 학원비, 숙식비, 생활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험기간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학전문대학원생처럼 학교장학금, 정부보조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기회만 주는 사법시험, 내일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은 고난입니다.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만 5년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험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미명 하에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는 대신 체계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실직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최근 3년간 합격률 비교

변호사시험			
연도	응시인원(명)	합격인원(명)	합격률(%)
2012	1,665	1,451	87.15
2013	2,046	1,538	75.17
2014	2,292	1,550	67.63
계	6,003	4,539	75.61

사법시험			
연도	응시인원(명)	합격인원(명)	합격률(%)
2011	14,449	707	4.89
2012	10,306	506	4.91
2013	6,862	306	4.46
계	31,617	1,519	4.80



## 법학전문대학원 VS 사법시험

사법시험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학교육과 단절된 현 법조인 양성 체계를 유지하고 '고시낭인'을 양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을 방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는 서민에게는 이러한 시험제도가 아닌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전형과 장학 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꿈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5년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부전공, 출신지역, 경제·사회적 배경이 사법시험 합격자들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3. 10. 1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그동안 새로운 양성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투입했던 제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된다.”  
 <중앙일보 2013. 05. 11>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장학금 혜택과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특별전형제도가 있다. 반면 사법시험은 고액의 학원비가 든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큰 진입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경제 2012. 0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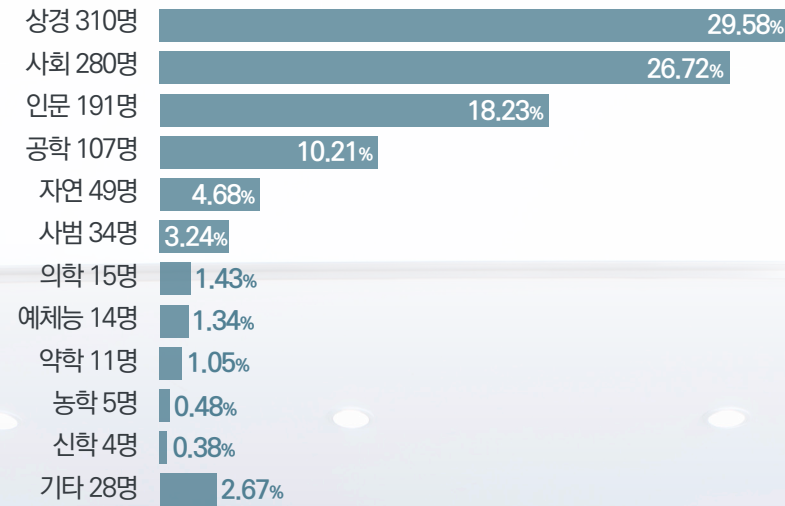
# Diversity

## 다양성 : 다양한 전공 및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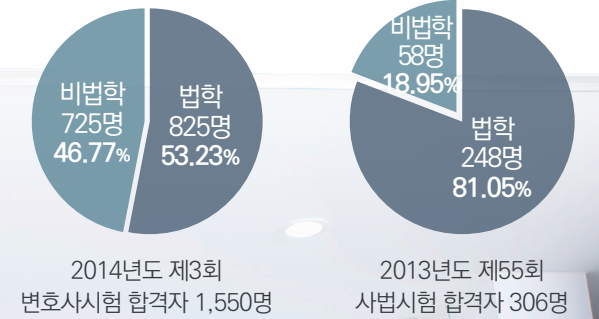
현대의 법적 분쟁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기존의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의료, 금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양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이고 일괄적이었던 법률서비스가 세분화되고 특화된 형태로 발전됨을 의미합니다.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제도

### ▼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비법학사 계열별 합격자 현황 계 1,048명 | 100%



###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 전공현황 비교



### 출신대학의 다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평균 95개 대학(국내 72개)에서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반면,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3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진출 문호가 사법시험제도보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공의 다양성

지난 6년 간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총 6,615명(연 평균 53.2%, 1,103명)의 비법학 전공자가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부터 3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비율은 56.0%(2,541명)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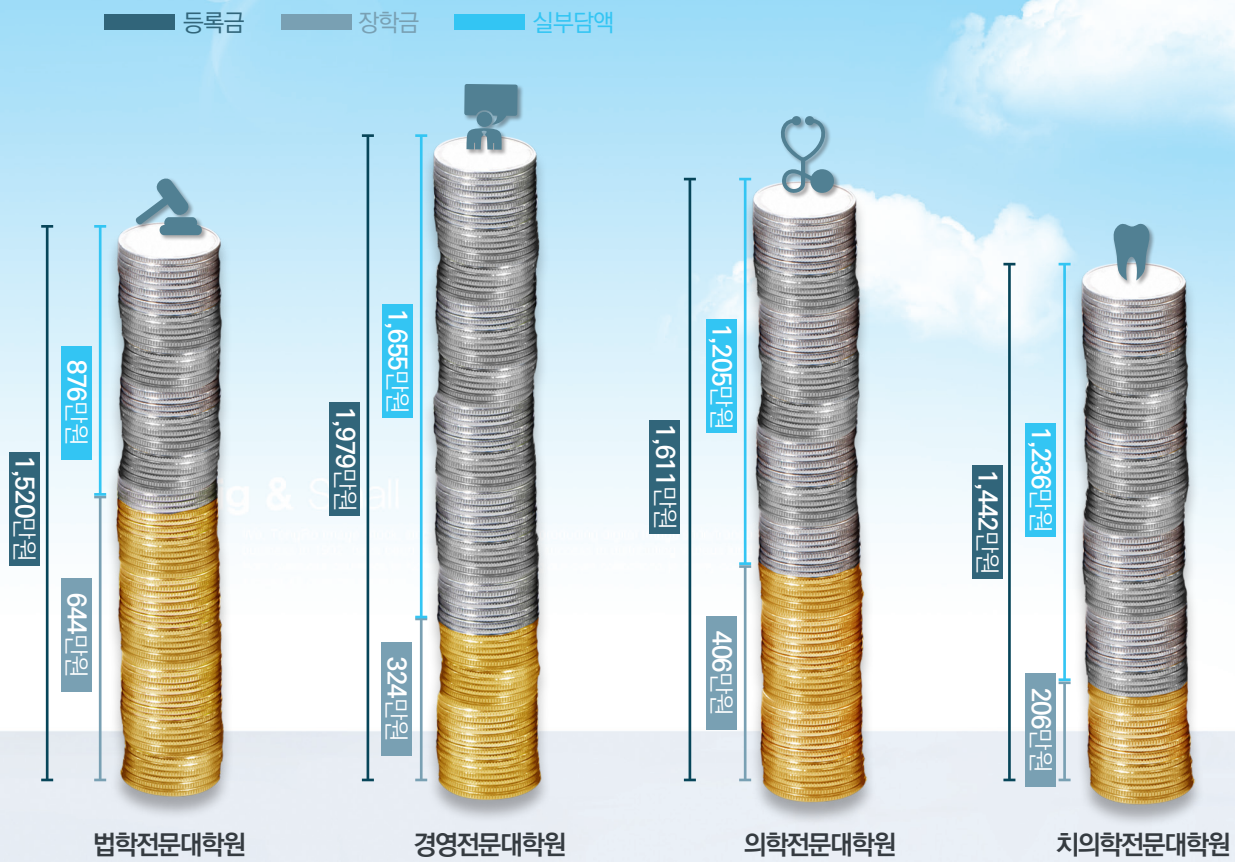
### 지식과 경험의 다양성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향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기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닌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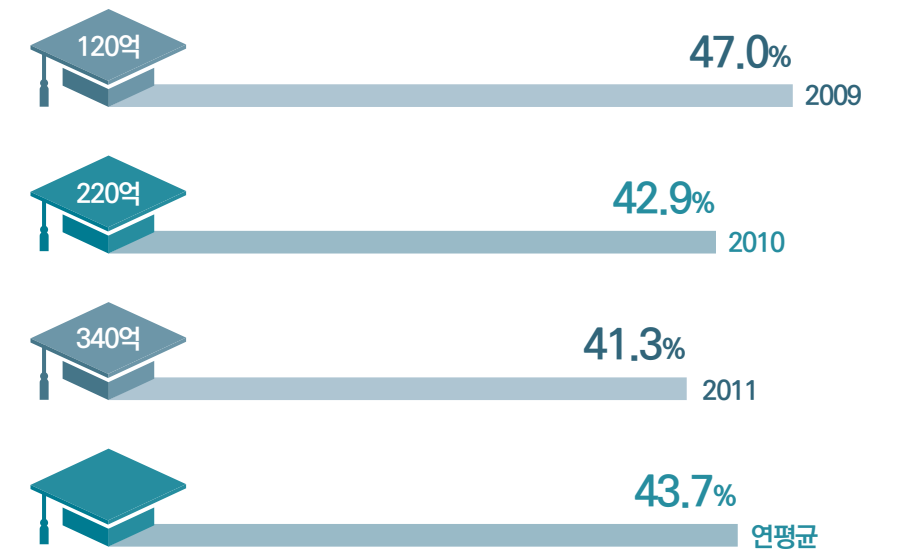
▼ 2011년 전문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



# Schola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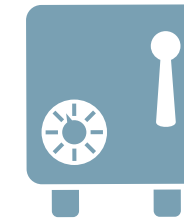
## 장학제도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노력

여러 전문대학원의 2011년 등록금 및 장학금을 비교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비싸다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도 열정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 ▲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중 89.2%가 전액장학금 수혜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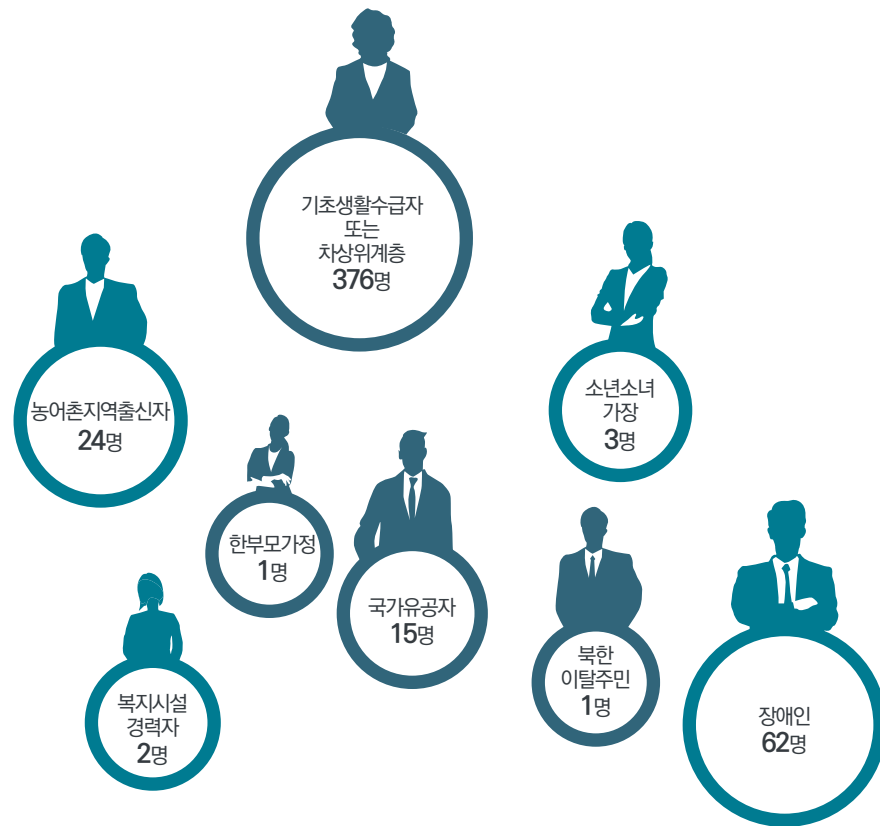




# Special Ad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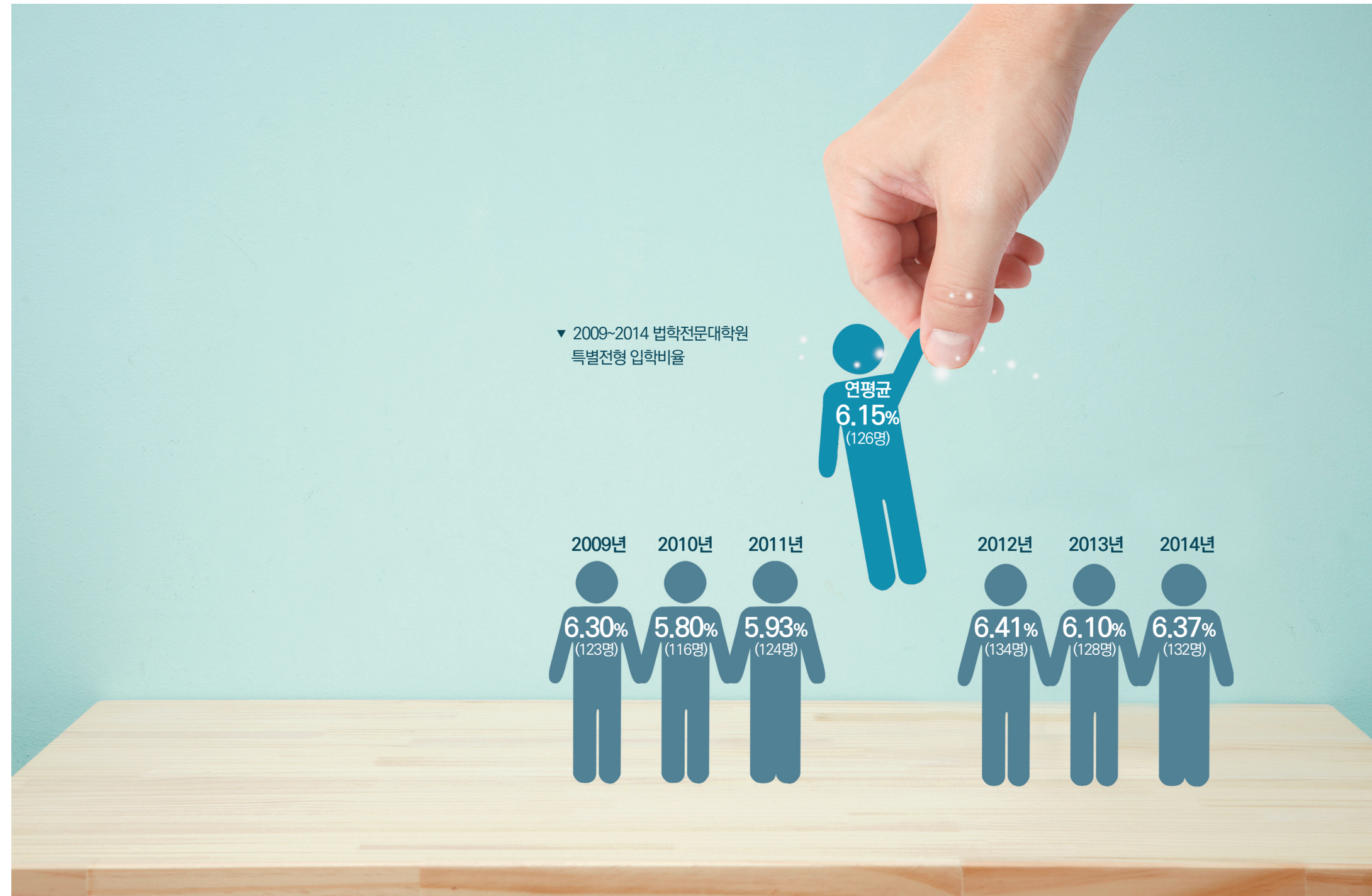
## 특별전형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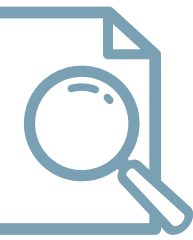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생의 5%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연 평균 6.15%(126명)의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하여, 그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천의 용'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 법학전문대학원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입학인원(2009~2013)

##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 투명한 입학전형계획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신입생 모집 전에 공표하고 그에 따라 학생을 선발합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생 선발 시 학사학위과정 성적(GPA), 적성시험성적(LEET), 외국어능력(공인어학시험점수),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 법률에서 정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합니다.

### 전형방법

1단계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정원의 3~6배수 선발)			2단계		
GPA	LEET 언어이해·추리논증	공인어학 시험점수	1단계 점수	LEET 논술	면접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독 하에 LEET 논술의 경우, 지원자정보를 알 수 없도록 처리한 답안을 다수의 채점 위원이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면접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에 외부변호사 및 타전공 교수를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원자를 심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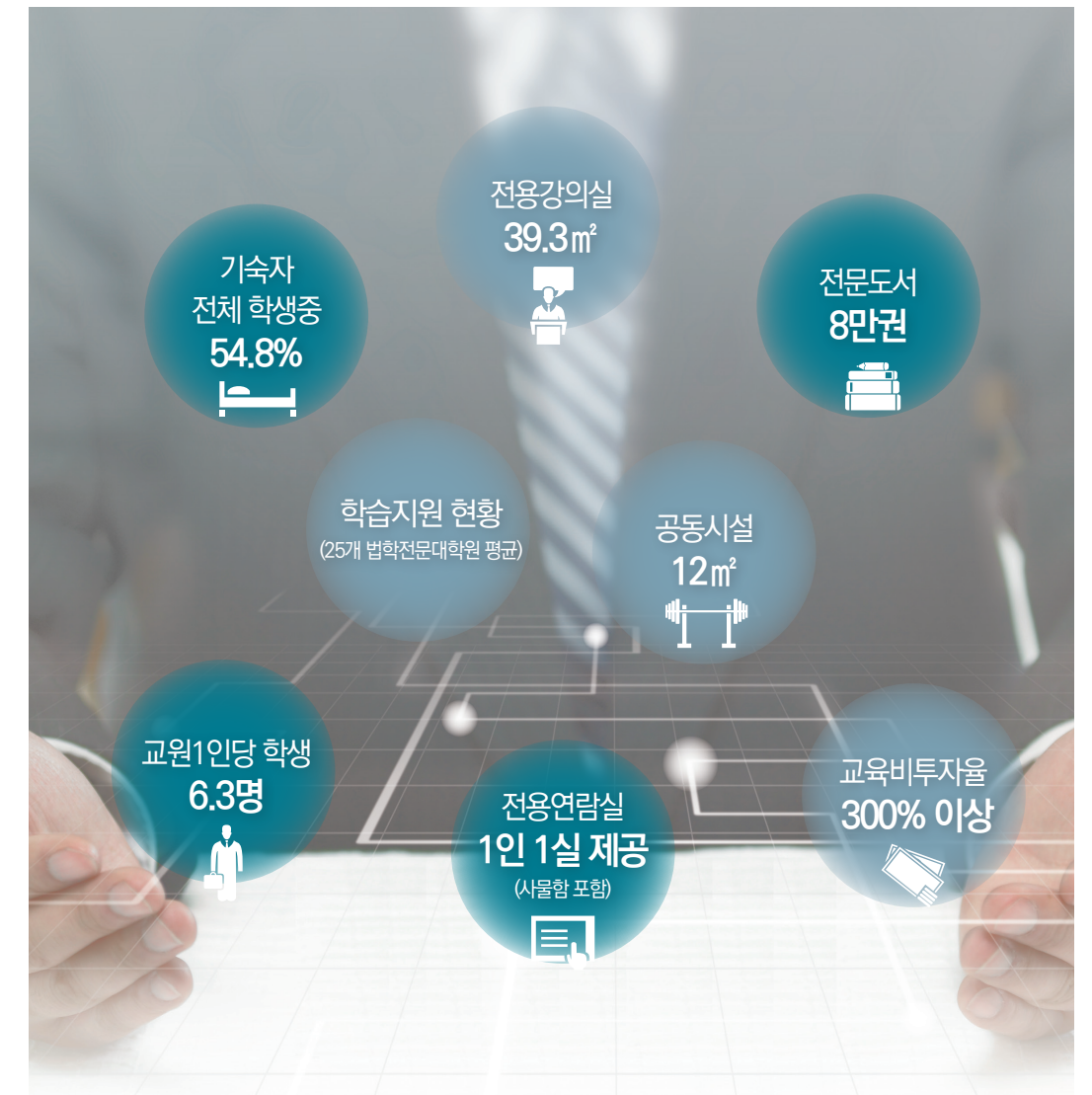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전공을 등한시하고 시험에만 매달리는 학생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황폐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성적(GPA)을 입학전형요소로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최상의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 미래 법조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특권

7만 권 이상의 법률 전문도서와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위한 전용 교육시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 법학전문대학원은 글로벌 시대에 높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평가인증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없던 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 The Voice of Students at Law School



우리는 막연한 기대만 갖게 하는  
사법시험보다  
분명한 미래를 선물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원합니다.

기회에서 끝나지 않는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 PREJUDICE AGAINST LAW SCHOOL

Copyright ©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